

2013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3.8.29(목) 17:30~19:00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신속성(정확한 시제), 공정성 등 확보해야

- 21일 15시 뉴스의 영광원전 한빛 6호기 가동중단 속보에서 이미 예비비상 단계인 '관심'이 발령됐는데 자막에는 '차질이 우려된다'로 시제가 맞지 않았으며 29일 09시 뉴스의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내용에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후에 보도된 내용은 '이의원 행방이 묘연'하다고 해 앞선 보도내용과 일치하지 않았음(김정연 위원)
- 한국일보 사태 보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소극적이었음. 자세한 내용을 기피하는 인상의 보도는 문제가 있음. 저널리즘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 등 더 큰 가치를 생각해야 함(김정연 위원)
- 원 주사 체포 관련 보도 시 뉴스Y는 '체포 예정'으로 나왔으나 타 언론사에서는 이미 체포가 되었다고 나왔음. 다시 6시 뉴스Y에서 또 '체포 예정'이라고 같은 내용이 반복돼 신속성 떨어져 아쉬웠음(임영호 부위원장)
- 국정원 정국이 한참 뜨거웠을 당시 8월 6일 정대철 민주당 상임고문이 단독으로 출연했음. 정치평론가나 교수 등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가 어려웠음(한박무 위원)
-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출연했음. 안철수 의원의 정치행보 내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 정치적 이슈나 현 정치상황 중심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는 시점에서의 부각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한박무 위원)

▲ 심층보도 강화해야

- 북한 정치 상황 보도 시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어서 부실한 느낌이었음. 실상을 심층있게 보도하는데 힘써야 함(박영상 위원장)
- 뉴스는 현장감이 중요하므로 세인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해야 함. on & offline 분석을 융합해야 하고 시청자의 스마트폰 뉴스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홍승용 위원)
- 8.15 60주년 대한민국의 성장 기획보도는 아쉬웠음. 수산물 안정성은 국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인데 일본의 후쿠시마 쓰나미 사태와 원전 그 이후 문제에 대한 심층보도가 부족해(홍승용 위원)
- 교육정책의 변화를 다룬 자사고 문제, 대학구조개혁 문제, 입시 정책문제 등 심층보도가 필요함(홍승용 위원)

- 전력난에 대한 보도는 대부분 긴급상황, 절전 캠페인에 치중돼 있어 불안감만 조성. 전력문제에 대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전력난을 해결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준비 등 심층적 기사를 전달해야 함(이석구 위원)
-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뉴스를 다룰 때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인터뷰도 함께 심층적으로 다루고 보도하면 좋을 것. 특히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과 같이 문힐 수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도한다면 좋을 것(차경애 위원)
- 스포츠 관련 보도 역시 일반뉴스와의 차별화가 8월에도 크게 부각되지 않아 아쉬웠으며, 종목별 일선 취재기자들을 활용한 심도있는 보도가 더욱 요구됨(최종준 위원)
- 영흥철 대전광역시장 불출마 관련 보도에서 단체장 첫 불출마선언 등을 강조했으나 시청자들은 불출마 이유와 앞으로의 행보 등이 더 궁금했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다뤄야 했음(김정연 위원)

▲ 생중계 및 속보보도 강화해야

- 8월 20일의 전월세대책당정협의 결과 발표 8월 26일의 양 건 감사원장 이임식 관련 뉴스 등도 국민적인 관심도를 고려하면 생중계 또는 현장 속보 등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었음(최종준 위원)
- 8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청문회의 경우 타 언론사 등과 지상파가 생중계(혹은 녹화)를 한 반면에 뉴스Y는 중계가 없었음. 청문회 초기분이라도 국민적인 관심사를 고려하면 생중계를 할 필요가 있었음(최종준 위원)
- 생방송 시 여과 없이 보도되는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한쪽 주장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음. 생방송을 1~2분 정도 늦춰 실시간으로 필터링한다면 문제의 소지를 걸러낼 수 있어 생방송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박영상 위원장, 한박무 위원)

▲ 보도내용에 부합하는 화면으로 구성해야

- 27일 오후 6시 30분 지방시대에서 부산 삼락천이 생태하천을 표방했으나 비온 뒤 물고기 수백 마리 떼죽음을 당했다고 보도했음. 그러나 자료화면에는 물고기 한 마리만이 떠있어 보도내용과 영상이 불일치했음(김정연 위원)
- 8월 15일 폭염으로 무더웠던 날씨에 대한 보도를 계곡이 있는 우이동 계곡에서 생방송으로 전했으나 배경화면은 나무와 풀뿐 계곡의 느낌이 들지 않았음. 날씨를 전하는 중간에 물놀이하는 계곡 풍경이 자료화면으로 삽입되긴 했으나 생중계의 장점을 전달하지 못한 느낌임(한박무 위원)
- 8월 27일 '북한은 오늘'에서 북한을 네 번 방문한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자 북한 여행 기고가인 신은미 씨가 출연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여러 얘기를 했으나 사실적인 자료화면이 부족했음(한박무 위원)

- 태안 빛 축제를 소개하는 방송에서 인터뷰와 기자멘트 오디오 그리고 화면이 맞지 않았음. 간혹, 화면과 오디오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이석구 위원)

▲ 화면 구성 및 자막 처리 등 개선 필요해

- 하단자막에 오타가 눈에 띄고 자막 문장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음. 자막 글자 여유 공간이 있다고 늘어뜨리면 뉴스의 긴장감이 떨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TV방송은 자막, 영상, 보도 불일치 등 작은 실수가 시청자 눈에 더 크게 비춰짐. 비중 있는 사안에 대한 각 언론사의 뉴스 기획력에는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시청자 눈에 크게 띄는 작은 실수를 바로잡는데 신경 써야 해(김정연 위원)
- 날짜와 시간표시는 특정시간대(아침 7~8시, 새벽시간대 등) 이외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될 것임. 효용성보다 시각적 피로감이 높음(한박무 위원)
- 왼편하단에서 돌아가는 사각 뉴스Y 로고는 프로그램 타이틀 또는 스테이션 로고용으로만 사용하거나 연합뉴스TV와 뉴스Y를 한데 묶어 새롭게 디자인해 오른쪽 상단에 위치시키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한박무 위원)
- 자막이 너무 넓어 화면 밑을 가리고 전체 화면을 작아 보이게 하는 역작용이 있음. 또 자막존 위의 기자이름, 출연자 이름 등을 처리하는 부분은 존폐를 고려해 불만해(한박무 위원)
- '뉴스1번지'라는 프로그램 타이틀이 한 화면에 2~3개씩 보이고 자료화면 박스도 2개씩 있어 전체적으로 어지럽고 복잡해 보임. 단순 간결한 것이 전달력도 좋고 눈의 피로감이 덜해 시청자를 오래 붙들어 놓을 수 있음(한박무 위원)
- 뉴스Y의 경우 메인컬러를 주황색상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인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짐. 따라서 가독성이 낮고 많은 국민들이 시력 약화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조속히 개선돼야 함. 타 언론사에서는 짙은 감청색 톤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신선한 이미지. 메인컬러의 교체가 어려다면 대안으로 제목과 기사체라도 다른 컬러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최종준 위원)
- 글자체도 검정바탕에 황색이어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자막스크롤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는 것 보다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훨씬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뉴스의 분류(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 등)가 없어서 불편하게 느껴짐(최종준 위원)
- 자막 고지 내용과 화면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왼쪽 상단의 메인 화면과 내용의 구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임영호 부위원장)
- 북에 억류 중인 케네스 배에 대한 방송 중 "건강악화로 입원"을 "건강악화로 인원"이라고 자막에 오타가 남.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이석구 위원)
- 방송에 있어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 자막, 화면해설 방송 도입이 시급함(이석구 위원)

▲ 반복적인 내용 등 보도 방식 개선해야

- 속보성에 중심 둔 '연합뉴스' 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 같음. 실시간 뉴스라 하지만 동일내용이 몇 시간 내지 한나절 반복은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별 박스로 보도하는 것이 나을 듯(홍승용 위원)
- 8월 13일 '북한은 오늘'에서 대북사업으로 북한을 200여회 이상 방문한 평화자 동차 박상권 사장이 출연해 북한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내용은 생생한 이야기라 신선하고 새로웠지만 8월 16일 '뉴스 1번지'에서 박상권 사장이 다시 출연,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돼 제목만 다를 뿐 큰 차이없어 아쉬워(차경애 위원)
- 8월 27일 뉴스초점에서 보도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비상'은 사실과 다름. 2012년 10월 8일 유은혜 국회의원실 국정감사 보도 자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뉴스의 생명은 정보의 사실 전달이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더욱 엄격하고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함(차경애 위원)
- 8월 20일 오전 10시 40분에 방송된 TV출연진의 단체광고와 관련한 뉴스에서 특정 제품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음(반면 타 방송사에서는 광고를 음각 처리)(최종준 위원)

▲ 홈페이지 개선 필요해

- 연합뉴스 기사가 홈페이지에서 구현될 때 관심 관련 기사의 검색이 잘 되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김경모, 한박무 위원)
-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하여 홈페이지의 개선이 시급함(이석구 위원)

▲ 비즈니스 모델, 장르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해

- 시청자가 직접 보도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며, 보도와 동시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면서 광고도 되는 보도와 광고 결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박영상 위원장)
- 광고 시간대에 시청자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 필요. 대학 입시철이라 대학의 유료 입학 홍보 시간 할애도 검토해야. 신문의 일회성보다 TV의 몇 차례 반복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큼(홍승용 위원)
- 새로운 장르개발이 필요함. 부고의 경우 망자의 업적 등을 고품격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방영한다면 좋을 것. 대부분 프로그램은 정치기사에만 치중하는 듯 한 느낌(박영상 위원장)
- 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상황.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램 배정이 필요. 휴먼다큐성 감성 프로그램보다는 각 계층이 어떤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취재와 방송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다양한 계층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 가치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 메인 이슈와 보도의 경쟁력도 필요하지만 마이

너한 부분에 있어서의 선도적 접근을 통해 경쟁력과 독창성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이석구 위원)

▲ 긍정적인 평가 사례

- 8월 1일 '뉴스1번지'에서는 '일본 방사능 식품'을 다루면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윤근 소장과 인터뷰를 했고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7일 일본 마쓰야마대학 장정욱 교수와 전화인터뷰를 했음. 비슷한 질문이었지만 일본과 한국 전문가의 입장을 비교하며 들을 수 있어 유익했음(차경애 위원)
- 8월 14일 '맹찬형의 시사터치'에서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개성공단 실무회담 전망 인터뷰를 했음. 실무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각에 전망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무회담에 더욱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함(차경애 위원)
- 8월 26일 '신율의 정정당당'에서 '일본산 먹거리 진실과 거짓'을 다룸.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일본산 먹거리와 관련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문 구성이 좋았음(차경애 위원)

▲ 기타

- 뉴스Y만의 특종인 경우 집중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지난 8월 12일 오후 12시 35분에 방영된 이마트(신세계푸드)의 납품업체 제품 copy에 관한 특종보도의 경우 단독보도라는 글제체가 매우 작았는데 큰 글씨체와 강한 컬러로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음(최종준 위원)
- 보도 내용을 모니터하는 요원으로 학생 인턴을 활용한다면 크고 작은 문제의 개선에 도움이 되고 효율도 높을 것(홍승용 위원)
- 정보전달 시 생활에 밀접한 세심한 내용을 보도해 실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박영상 위원장)
- '신율의 정정당당' 표제에 나오는 신율 진행자의 옷 정장이 너무 더워보임. 오래전 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는 옷으로 촬영한 것은 아니지만 계절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촬영해서 계절에 맞는 진행자의 모습을 보여줘야(차경애 위원) (끝).